

일본의 최강 공작기계메이커, 모리세이키社 엔高리스크 분산으로 돌파구 모색

최근 사상 유례없는 초엔高하에서 일본 최강 공작기계메이커로 잘 알려진 모리세이키사가 유럽 최대 공작기계메이커와의 자본제휴·생산방식 전환 등으로 엔高리스크를 분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어 주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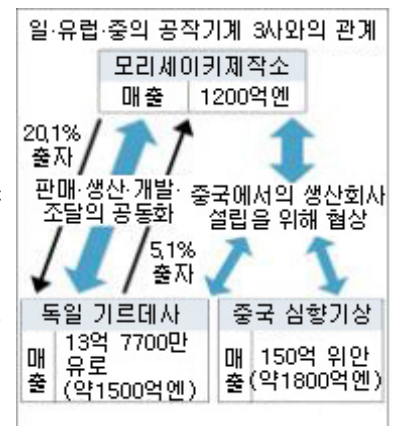
- 사상 유례없는 엔高하에서 모리세이키 제작소는 유럽 최대 기업인 기르데마이스터사와의 자본제휴 등으로 엔高리스크를 분산, 수익 확대를 지향
- 독일 기업에 급속히 접근
 - 2009년 3월부터 자본제휴관계에 있는 유럽최대 공작기계메이커인 독일 기르데마이스터와 주력시장의 하나인 유럽에서 양사 판매망을 9월 이후 순차적으로 통합
 - 이제까지도 아시아에서 판매망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유럽에서의 통합은 여의치 못함. 이에 업계에서는 「제휴가 잘 되고 있지 못하다」든가 「모리세이키는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등 회의적인 견해를 보임.
 - 이러한 의구심을 일거에 날려버리기라도 하듯이 모리세이키는 금년 4월 기르데사에의 출자비율을 13.6%에서 20.1%로 늘림. 그런가 하면, 중국 최대기업인 심양기상도 참여시켜 3개사 합작에 의한 생산회사를 중국에 설립키로 하는 교섭에도 들어감.

- 8월에는 기르데사도 모리세이키에의 출자비율을 3.74%에서 5.1%로 늘림.

□ 독일에서 적대적 매수라는 관측까지 나돌고 있는 기르데사에의 출자 비율 증대와 관련하여, 모리세이키가 일본에서 저리의 자금을 활용하여, 기르데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음. 그러나 예상을 넘어선 급격한 엔高로 모리세이키가 제휴강화에 나섬.

- 동사는 해외에 대규모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거의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 엔高의 영향이 타사보다 큰 편임. 이에 먼저 시작한 것이 공동으로 생산·판매체제를 구축, 고정비를 절감하고 환율변동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임.

□ 일본에는 모리세이키, 독일에는 기르데 공장, 미국에서는 2012년 여름쯤 모리세이키가 신규 공장을 설립 예정임. 중국에서는 기르데사의 기존 공장에 더하여 저가기종에 특화된 심항 기상과의 합작공장이 완공되면, 일본·독일 연합은 주요 4개 시장에 생산거점을 갖게 되는 셈임. 이미 설계나 조달공동화에 착수하고 있어 많은 기종을 세계 어디에서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모리세이키의 주력거점 이가사업소(미에현 이가시 소재)의 부지면적은 약 60만평방미터로 고시엔야구장 15개분 면적임.

□ 도요타 방식 도입

- 「당사의 생산방식을 하나에서부터 바꾸고 싶다」. 도요타 자동

차 폴란드현지법인 사장을 역임한 바 있고 금년 4월에 모리세이키에 영입된 생산기술·생산관리본부장의 말임. 이에 따라 모리세이키는 전체 생산대수의 10%를 점하는 주력기종을 금년중 라인생산방식으로 바꿀 예정임.

- 모리세이키는 2002년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한 사람이 기계를 작동하는 셀생산방식을 도입했으나 라인생산방식이 대량생산에는 적합함. 도요타류의 생산방식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20%정도 향상, 엔高에의 대항력을 높인다는 것임.

- 외부의 문화를 적극 받아들여 엔高와의 싸움에서 패퇴하지 않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공작기계메이커로 군림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모리세이키사의 새로운 전략은 많은 라이벌들의 주목대상이 될 것임.

< 참고자료 >

日本經濟新聞(2011.8.16)외